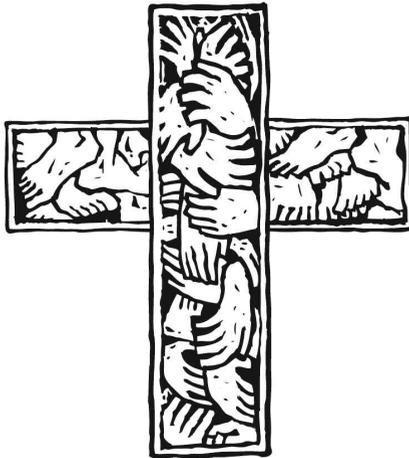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5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35. 큰 영화로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만물을 따사롭게 비추며 보듬는 가을 햇살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그 은총의 햇살 아래 무르익는 생명들을 보며 삶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도 주님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변화되고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삶을 경축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잠시 땅에 머물다 가는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성을 높이 쌓으며 가인의 후예인 듯 살아갑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편46:1-2 인도자
▲ 교 독 문	75. 마태복음 6장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47. 이 세상 끝날 까지 다 함께
▲ 성경봉독	I. 약5:13~20 인도자
	II. 막6:30~44 조성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중물 찬양대
	II. 문들아 머리 들라 청파 찬양대

말 씌 I. 이와 같은 때에 김기석 목사
 II.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태후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예배부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우리 삶과 신앙의 보물을 묻어 놓으셨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우리 시대의 땅끝에 서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 곁에 다가가 손을 맞잡고 주님의 보물을 발견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환경세미나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환경세미나 참고자료 ■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발걸음

1. 책임도, 해법도 우리에게 있다

사막화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 영국 에너지기업 비피(BP)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50.5%)고, 2위는 한국(24.6%)이다. 지난 10년 사이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11.2%인데, 한국의 증가율은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일본, 독일은 지난 10년간 각각 -15.3%, -7.1%, -5.4% 등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성공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등 탄소 감축에 앞장서는 나라가 많은 OECD의 평균 증가율은 -8.7%로, 역시 감소세였다.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모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기 원한다. 그것은 국가의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 모든 개인, 국가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곳이다. 이 세상에서 무한히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는 암밖에 없다. 무한 성장은 내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성장뿐이다. 이제 우리는 채움이 아닌 비움의 영성으로 모든 이에게 환경선교를 전해야 한다.

2. 환경선교를 실천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신학적 관념을 통하여 이해되거나 과학적 진위를 통하여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음’ 그 자체에서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목적과 이유를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에베소서4:6)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와 새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위임하셨다. 각각의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오롯이 제 몫을 누리며 살도록 보살피고, 조정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

구나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다. 현대인의 지식 축적량은 놀랍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그냥저냥 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 없이는 자연과의 평화도 없다. 그러나 자연과의 평화 없이는 사람들 간의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신앙인은 환경파괴에 의한 재난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며 회복에 의한 희망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모든 환경운동가가 크리스천일 수는 없으나 모든 크리스천은 환경운동가이어야 한다.

이 시대 교회는 환경선교를 하나님의 요청으로 인식하고, 하나님도 감탄하신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되어 환경선교를 실천해야 한다. 실천은 생태적 삶으로의 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청파교회 환경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즐거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구생태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힘쓰고 있다. 지구적인 문제에 개인의 노력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열두 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는 세상을 바꾸었다. 이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는 기만적 변명을 둘러대지 않는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묻게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겠는가?’

3.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추구하는 ‘은총의 숲’ 환경선교의 목적

1. 지구차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 온난화 억제에 기여한다.
2. 아시아와 한반도에는 사막화 위기를 막고 황사 피해를 줄인다.
3. 몽골에는 녹지 공간 확대를 수자원을 보전하고 약초와 산채를 길러 몽골 주민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
4.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해외선교에 있어서 높은 신뢰감을 얻도록 하여 탄탄한 선교적 기반을 형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는 선교적 실천을 강조한다. 기환연은 그 실천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몽골을 위해 한국교회의 복음과 물질과 재화를 나누는 ‘은총의 숲’ 선교를 시작했고, 은총의 숲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으며 몽골의 초목화로 사막화를 저지하며 황사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케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무를 심어 아프리카에 희망을 준 공로로 20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왕가리 마타이 교수는 ‘모든 인류가 평생 열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숲

정희성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 있더군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건너며
술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낮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곽새롬 권혁순 박혜경^b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a 김인걸 문영혜 김재흥 최희영 김정규 이종옥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홍수
 남명진 김애정 노신후 노연정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신연화
 박상옥 임서영 박영희 방문성 박혜경^a 방 민 방 준 성지현 손이주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유금주 윤영주 윤정득 이시경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유진
 이재우 배이화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임 영 정경례 장동훈 정은선 전성호
 전현선 정연경 조관행 홍선희 조미선 최은미 최형균 강경화 최희영 하현철
 최성애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홍소형

감사헌금

김반야 김성수 김영호 김와니 권윤경 김용진 박효선 김정근 김창조 김소민
 김충실 조아라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박지영 변종복 송병한 신진식 변혜정
 유지은 윤선호 임선아 이상남 이상도 이순이 이순정 이자애 전길남 김경희
 정구봉 정용구 채일석 최혜정 무명⁴

생일감사헌금

한준혜 한지혜

녹색꿈헌금

권미숙 김재흥 윤미경 윤수진 이범석 류정옥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환경세미나 :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은총의 숲 이야기: 아직도 가야할 길'이란 제목으로 환경세미나가 열립니다.
2. 전교인 나들이 : 10월 14일 김유정 역 일대로 전교인 나들이를 갑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산에서 전용 전철을 타고 갑니다.
3. 수요저녁기도회 : 이번 주 수요 떼제 기도회는 쉽니다.
4. 신앙실천 : 가을별이 좋습니다. 생명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신명기 24:19-22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이국노

10월	1부 영접위원	최재욱	헌금위원	이수정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권혁순 허신열 유경순 이은주 김경혜		
	2부 헌금위원	곽권희 조항미		

오늘 식당 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최영미 조장형 박재영			
다음주식당봉사	곽권희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증희 강희석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10월)		다음 주 주차봉사	조성일